

# 남녀 성차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의학적 몸\*

이기복\*\*

조선시대 의학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남녀 성차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의학적 몸에 대한 관념과 인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의학사 지형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젠더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의학을 논한 그간의 연구는 단지 유교 이데올로기와 남존여비 가부장제의 연장이자 이에 봉사한 의학, 그리고 취약성, 수동성, 열등성으로 규정된 여성이라는 도식적이고 단순화한 서사가 주류를 이뤄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을 탈피해 여성의 몸을 다르게 기술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그간 진행된 개별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조선시대 전반의 연속성 위에서 젠더 관련 의학적 몸에 대한 서사를 부연, 재해석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논문은 ‘남성 대 여성’, ‘서구 대 비서구’, ‘근대 대 전근대’라는 단순화한 이분법을 지양하며 성차에 따른 의학적 이론 및 실행이 시대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성차를 중심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의학적 몸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명명컨대, ‘생생의 몸’, ‘생식의 몸’, ‘양생의 몸’, ‘감정의 몸’, ‘개인성의 몸’이 그것이다. 우주 천지에서 작동하는 ‘생생의 몸’은 천지 만물을 생화하는 우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웅동체의 몸이다. 가문과 국가로 내려온 ‘생식의 몸’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손을 확보할 수 있는 생식력에 초점을 두면서 성별화가 진행됐다. 이에 비해, ‘양생의 몸’은 불로장생하는 탈속의 진인을 지향하는 탈 성별화된 몸이다. ‘여성은 감정에 취약하다’는 속설이 덧붙여 다니던 ‘감정의 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개인성의 몸’이다. 성정의 문제는 남녀 성차의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문제라고 언명하는 ‘개인성의 몸’은 절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감정을 오히려 자아 완성의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이러한 의학적 몸의 전개 과정은 한국 의학사 나아가 동아시아 의학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766).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주제어 한국의학사, 조선, 의학적 몸, 젠더, 성별화, 성차의학,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 1. 들어가는 말

남녀 성차를 특징짓는 통념은 적지 않다. 속설에 여성은 꽤거리를 짓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마초적 기질이 센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여성의 경우 속이 좁다거나 남성은 팔십이 돼서도 여자를 밝힌다며 낮보기도 한다. 나아가, 뇌의 구조 및 기능을 예로 들며 여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성은 이성적 사고에 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sup> 여성은 우울증에 잘 걸리는 반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에 비해 짧다는 보고 역시 익숙하다. 이는 특정 성이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영향 때문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인가? 여성은 임신이나 월경을, 남성은 성생활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나, 정자가 수동적인 난자에 침투해서 수정이 이뤄진다는 생물학 텍스트에서의 기술은 어떠한가?<sup>2</sup> 과거에는 어땠을까?

- 
- 1 최근 뇌과학 연구는 이른바 ‘남성의 뇌’, ‘여성의 뇌’라는 것은 없다는 뇌 모자이크 설을 주장한다.
  - 2 충분한 연구성과로 뒷받침하기 이전, 불충분한 과학 지식이 제시되는 과정에 이념적 편향이 개입되는 사례는 과학의 역사에서 적지 않다. 수정 과정에 대한 그간 생물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은 수동적인 여성상 대 주도적인 남성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Emily Martin (1991), “The Egg and the Sperm: How Science Has Constructed a Romance Based on Stereotypical Male-Female Roles,” *Signs* 16(3), pp. 485-501]. 이러한 서술 양상과 달리, 최신 연구는 수정이 난자와 정자군 두 행위자가 상호 협력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자궁벽이 변화하면서 섬모운동으로 정자의 이동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며, 난자 역시 유도 물질을 방출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장 좋은 또는 선호하는 정자를 선별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테면 조선중기 종합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 1613)을 두고 혹자는 남성을 위한 의서일 뿐이라며 내치기도 한다. 전문분과 이들테면 부인과 및 소아과의 등장은 차별인가 배려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의학 관련 논리 및 서사를 살펴보면서, 양성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방식과 이에 따라 규정된 의학적 몸의 여러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학 분야를 포함해 역사학계에서는 여성의 몸과 관련된 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왔다. 예를 들면, 여성주의 사학자들은 동서를 불문하고 여성 차별의 양상과 그 작동 기제로 작동했던 인식론적 토대 및 남성주의적 시각을 지적하며, 젠더 규범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대해서 줄곧 비판해 왔다.<sup>3</sup>

그렇지만 특히 비서구 지역의 경우 여성의 행위성이나 주체성을 이른바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구속이라는 틀 속에서 해소시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서구의 자민족주의적 여성주의 학자들은 비서구 지역 이들테면 중국의 여성을 주로 유교 이데올로기나 봉건적 굴레에 갇혀 지내는 수동적인 피해자나 희생자로만 표상해 왔다. 이러한 서사에는 중국의 신문화운동이나 공산주의 혁명노선도 한몫을 했다. 역사학자 코우(Ko)와 퍼스(Furth) 등은 이러한 서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sup>4</sup> 이는 사실 오리엔탈리즘의 변종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코우는 단지 굴레로서 상징됐던 전근대 시기 중국의 ‘전족’(纏足) 관행을 여성의 행위성과 주도성이라는 관

3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다음을 보라. 권순형 외(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저,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4 Dorothy Ko (1994), "Introduction: Gender and the Politics of Chinese History,"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26; Charlotte Furth (1998), *A Flourishing Yin: Gender in China's Medical History, 960-16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sup>5</sup>

최근 한국여성사 학계도 이에 조용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여러 사례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이 단지 희생자로 살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적 능력과 유교적 규범을 전략적으로 동원해 자신의 일상 공간에서 재량권과 영향력을 높여 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6</sup> 유교 이데올로기와 성별 규범이 오히려 여성 주도의 문화적 공간을 열어 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의 여성은 단지 유교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이며 피동적인 희생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문화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며 주도성을 발휘해 왔다는 것이다. 주목건대 그 과정은 상대 남성 측과의 대항이나 대립이 아닌 전략적 타협이나 협업을 통해서 이뤄 낸 것이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 억압자와 피해자,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을 상호 대립적이거나 일방향적인 관계인 것으로 전제하며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시킨 일반적인 서사나 담론과는 다른 그림이다.

여성의 행위성을 조망하고자 했던 연구 외에 의학적 몸에 대한 인식을 당시 의학 텍스트 속의 논리나 서사에서 검토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면 성차와 관련된 논의는 대개 양성 간 차이점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과정에 모아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의학사 분야에서 여성 몸 관련 연구에 선구적 역할은 한 학자는 앞서 언급한 퍼스다.<sup>7</sup> 그녀

5 Dorothy Ko (2005), *Cinderella's Sisters: A Revisionist History of Footbinding*,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승중(2008),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gender 문제와 성리학: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 『역사학보』 197, pp. 1-29; 이순구(2015),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3, pp. 37-66; 하여주(2021), 「조선후기 유교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역할: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4(2), pp. 41-71; 하여주(2022),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친정살이'와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색: 진주하씨 묘 출토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7, pp. 1-34.

7 젠더 관련 중국의학사 분야의 연구 개관 및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역시 성차에 대한 생의학의 본질주의적 시각과 역사서술에서의 편향적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서 송대부터 명대까지 의학적 담론 및 관련 유비를 분석했다.<sup>8</sup> 여성의 몸을 “생성(generation)의 몸”과 “회임(gestation)의 몸”으로 나누는 퍼스는 흥미롭게도 그간 의학의 발전 과정으로 간주됐던 송대 부과(婦科)의 등장은 오히려 ‘성별화’되는 과정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런 비판적 안목에서, 퍼스는 음양론에 대한 낭만적인 인상과는 달리 ‘음’(陰)은 현실 세계에서 숨겨진 여성의 몸이고 은밀한 성(性)의 측면이며 삶과 죽음이 동반된 위험을 이룸하며 ‘혈’(血) 또한 종속적이며 물질적이고 취약하되 중요한 여성의 생식기능을 이룬다고 평했다.<sup>9</sup> 퍼스의 연구를 이어 중국 의학사 연구자 우(Wu)는 청대의 부과를 분석하면서 ‘탈성별화’라는 회귀적 흐름을 탐구했다.<sup>10</sup> 우는 그 과정을 청대 ‘유의’(儒醫: 文人醫師)의 자의식이라는 맥락 속에서 독해했다. 한국의 경우, 비교문화사의 관점에서 조선의 『동의보감』을 분석한 우(Wu)가 부인과 편제에서 경도(經度)가 유리된 점을 들어 경도가 여성성을 당연히 표상한다는 통념은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sup>11</sup> 이에 비해, 연구자 하여주는 우가 주목한 『동의보감』의 ‘탈성별화’라는 특징에 대한 언급 없이, 여성 차별적인 유교 규범 및 의학 언설을 중심으로 조선 의서의 남성 우월주의적 측면을 강하게 비판했다.<sup>12</sup>

---

Wang Yishan (2022), “Sexing the Chinese Medical Body: Pre-modern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Lens of Gender,” *Routledge Handbook of Chinese Medicine* (ed. by Vivienne Lo and Michael Stanley-Baker with Dolly Yang), New York: Routledge, pp. 356-367.

8 Furth (1998).

9 Furth (1998), p. 265.

10 Yi-Li Wu (2010), *Reproducing Women: Medicine, Metaphor, and Childbirth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1 Yi-Li Wu (2016), “The Menstruating Womb: A Cross-Cultural Analysis of Body and Gender in Hō Chun’s Precious Mirror of Eastern Medicine (1613),” *Asian Medicine* 11, pp. 21-60.

12 하여주(2018),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 『東醫寶鑑』과 『歷試漫筆』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09, pp. 1-40. “결론적으로 조선 사회는 여성의 몸에 수동성을 부여하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제 조선시대 의학적 몸을 검토하고 의학사적 의미를 거시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글은 단지 유교 이데올로기 가부장제의 연장이자 이에 봉사한 의학이라는 도식적인 서사와는 다른 복합적인 의학 지형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접근법은 이렇다. 즉 여성 대 남성, 근대 대 전근대, 서구 대 비서구라는 대립적으로 단순화한 이분법을 지양하면서, 동아시아 의학 특히 조선시대 의학적 몸의 다양성 및 의학 전통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특히 오리엔탈리즘과 이의 변주인 서구의 여성주의 담론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에 대한 본질주의적 시각과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구조화한다. 먼저, 조선시대에 유통, 소비, 생산된 의학 관련 텍스트를 검토 대상으로 해 성차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의학적 몸’ 다섯을 추출해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선행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의학적 몸도 추가한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선행연구와 달리 여성에만 두지 않고 남녀 모두에 두는 방식을 취하며 성차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주의컨대 물론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조선시대 의학적 몸을 전부 대표한다거나 각 몸의 유형 간 경계가 명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다섯이 순차적으로 대체되는 관계 또한 아니다. 다음, 텍스트의 융합성 및 중층성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은 물론 고전 『황제내경』(黃帝內經)조차도 여러 시대 다양한 학파 및 학자의 논의나 언설이 중층적으로 엮인 텍스트다. 이런 까닭에 하나의 의서를 시간적 혹은 개념적 층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이들을 분리해 분석한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은 조선 초·중기는 물론 한대 및 당·송대의 의학적 몸의 단편들도 함께 들어 있다. 전근대 시기 한국과 중국은 의학 텍스트 및 담론의 장을 공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13</sup> 덧붙여, 의학적 몸을 중심으

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약하고 불리한 몸으로 파악하였다”(p. 2).

13 이런 까닭에 전근대 시기 한국사 특히 지성사를 다룰 때, 제목에 “한국(고려/조선)” 아니면 “동아시아”를 넣는 데 난점이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중국과 공유하는 게 그렇게 많은

로 인식적 시선, 지향점 및 실천론, 작동 공간, 대표 약물 등을 함께 논급함으로써 제시한 몸의 유형 간 차이점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의학적 몸의 출현 배경이나 이에 조용하는 사조를 언급하기로 한다. 이로써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보완하고 종합하면서 논의를 심화시켜 이들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의학사의 새로운 지형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 2. 생생(生生)의 몸: 태극음양(太極陰陽)

첫 번째로 살펴볼 의학적 몸은 이른바 태극음양이 작동하는 우주론적인 사유 속에서 인식되는 몸이다. 한마디로 태극음양의 원리에 따라 만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전화(轉化)하듯이 남녀의 몸 각각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쉽 없이 생화(生化)하는 주체인 하나의 태극이자 음양으로 본다. 이는 우주변화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역경』(易經)에서의 사유를 의학에서 포괄한 것이다.

기(氣)가 비롯되고 형(形)이 시작되어, 천지가 서로 말미암아 낳고 낳아서 바꾸고 바뀌[生生化化] 온갖 물(物)이 드러난다.<sup>14</sup>

천지의 기운이 쌓이고 쌓여 만물이 화하여 익게 되고, 남녀가 정(精)을

---

데 “한국(고려/조선)”이란 말을 내세우는 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 조선에서의 사유나 지식이 타 국가로 확산된 정도가 불확실하거나, 일본이나 베트남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동아시아”라는 말을 써도 적절한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4 『鄉藥集秘方』 「胎教門/孕元立本章」, “氣初形始, 天地相因, 生生化化, 品物彰矣.” 관련된 언설로는 “生生之謂易”(『周易』 「繫辭上傳」 5장)이 있다.

업으매 만물이 화하여 생겨난다.<sup>15</sup>

사람을 생하는 과정은 천지 우주와 나란하다. 곤도(坤道)는 여자를 이루고 건도(乾道)는 남자를 이루니 서로 짝을 지어 지아비와 지어미가 되는데, 낳고 기르는 것은 이에서 연유한다.<sup>16</sup>

‘건도(乾道) 남성, 곤도(坤道) 여성’은 기화(氣化)로써 말하는 것이니, 하나의 온전한 성(性)을 각기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온전한 태극이다.<sup>17</sup>

이들 서시는 태극음양이 서로를 말미암아 화합함으로써 만물을 화생하는[陰陽因和萬物化生] 과정의 참여자이자 행위자로 인간 남녀를 천지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그리고 인체 생명 대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삼재(三才) 사상을 통해 이를 우주적 차원으로 유비 확대하기도 하는데, 이를 생생화화(生生化化) 혹은 생생불식(生生不息)으로 표현하곤 한다.<sup>18</sup> 또한 양정(兩精)의 결합, 태의 생성, 성의 분화, 태아의 탄생 및 성장 과정도 우주론적이며 수비학적인 묘사가 동원된다.<sup>19</sup> 예를 들면, 여성은 2×7

15 龔廷賢, 『萬病回春』 「萬金一統述」, “天地綱緝, 萬物化醇也. 男女媾精, 萬物化生也.”; 『周易』 「繫辭下傳」 5장. “天地綱緝, 萬物化醇. 男女媾精, 萬物化生.”

16 『周易』 「繫辭上傳 1」 1장. “惟人之生, 與天地參, 坤道成女, 乾道成男, 配爲夫婦, 生育攸寄.”

17 朱熹, 『太極解義』, “乾男坤女’, 以氣化者言也, 各一其性而男女一太極也.”

18 『鄉藥集成方』 「胎教門/孕元立本章」, “『婦人大全』論曰 有泰初, 有泰始, 渾淪一判. 既見氣矣, 故曰泰初. 既立形矣, 故曰泰始. 氣初形始, 天地相因, 生生化化, 品物彰矣. 故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至哉坤元, 萬物資生.” 참조컨대 유교의 天地人 三才論 역시 人間 특히 士人을 사회의 도덕적 주체에서 나아가 우주와 만물 창조의 주체자로 위치시키고 그 역할을 “參贊化育”, “中和位育”, “裁成輔相”으로 기술한다;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身形」, “『易』曰, 一陰一陽之謂道, 男女媾精, 萬物化生, 乾道成男, 坤道成女. 此蓋言男女生生之機, 亦惟陰陽造化之良能焉耳.”

19 許浚, 『東醫寶鑑』 「婦人/十月養胎」.

14세에 천계(天癸)가 오고, 남성은 2×8 16세에 천계가 이르러 비로소 임신할 수 있다.<sup>20</sup> 이때 7과 8 그리고 천계는 “천일생수”(天一生水)라는 우주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경도 즉 월경을 지칭한다. 남녀 공히 성 성숙 과정 역시 우주적 과정의 일환이다. 이를 우주 천지라는 공간에 놓인 “생생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때 생생화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음양 즉 건남곤녀(乾男坤女)가 서로 ‘화하여 합하는’(和合) 것이다.

이 생생의 몸에는 이미 잠재적으로 여성성 및 남성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암수한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음과 양은 서로 고리를 이뤄 처음과 끝이 없고, 서로에 뿌리를 두고, 서로에서 생겨나며, 서로 안에 서로가 있고, 음과 양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극에 이르면 각기 상대 음양으로 전화한다.<sup>22</sup> 음양은 서로를 얻어 만물을 생화할 수 있어서 남녀는 각기 하나의 태극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기 자용동체로서 상호 간 위계가 없으며, 여성은 남성의 결핍이거나 변이가 아니다.

이러한 의학적 몸은 고전인 『황제내경』과 『주역』이 편술됐던 진·한대 제국 형성기의 정치적 청사진의 일환 즉 우주론의 종합 및 황제권의 안정화 전략의 하나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알려져 있듯이, 음양, 오행, 기 개

20 『鄉藥集成方』「胎教門/凝形殊稟章」.“男女構精，萬物化生，天地陰陽之形氣萬焉。『繫辭』曰，天地絪縕，萬物化醇。易女構精，萬物化生。語七八之數，七少陽也，八少陰也，相感而流通，故女子二七天癸至。男子二八天癸至，則以陰陽交合而兆始故也。”

21 Furth (1998)는 『黃帝內經』에서 보이는 우주론적 몸을 두고 “黃帝의 몸”이라 칭했지만, 『黃帝內經』에는 물질, 구조, 해부에 토대를 둔 다른 醫說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의학적 몸의 지향성을 강조해 “생생의 몸”이라는 다른 용어를 선택한다.

22 黎靖德, 『朱子語類』, “一陰一陽, 如環無端.”; 『靈樞』「營衛生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素問』「天元紀大論」, “陽中有陰, 陰中有陽.”; 劉安, 『淮南子』, “陽生於陰, 陰生於陽.”; 張介賓, 『景岳全書』「新方八陣/新方八略引」, “陽得陰助, 而生化無窮 … 陰得陽升, 而泉源不竭.”; 蕭珥, 『女科經綸』「崩帶」, “濟陰綱目」曰, 氣血, 人身之陰陽也。陽主升, 陰主降, 陽根乎陰, 陰根乎陽, 一動一靜, 互爲其根, 則一升一降, 循經而行, 無崩漏之患。”

념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상관적 사유체계가 종합화되는 과정은 당시 정치 이론가들이 전국시대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무력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했던 전국시대의 통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우주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의 매개자인 황제(皇帝)라는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황제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해 정치적 질서를 유지코자 했던 사실과 맞닿아 있었다.<sup>23</sup>

천지 우주에서 작동했던 생생의 몸이 지상의 인신(人身)으로 구상화하는 과정 역시 음양론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 상부에 있는 유(乳房), 남성의 경우 하부에 있는 신(腎: 陰莖)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성은 음이 극에 이르러 아래에서 위로 올라 상부가 커지고 하부가 줄어들지만, 양에 속하는 남자는 이와 반대여서 상하 상황이 역전된다.<sup>24</sup> 이는 여자는 위, 남자는 아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가? 남녀와 유비되는 천지를 상하로 보고 높고 낮다는 언명도 있지만, 천지를 중심-주변 관계로 보아 지(地)가 중심에 있고 이를 천(天)이 밖에서 둘러싸고 있다는 묘사도 존재한다. 음양 언술의 경우, 양이 음을 지키고 음이 양을 부린다는 서술도 있어, 음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sup>25</sup> 진단 및 침구 치료 과정에서 활용되는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언표는 어떤가?<sup>26</sup> 좌와 우는 그 위계가 고정적이진 않다. 좌를 높이는 경우는 조선시대에 좌의정의 직임을 우의정보다 높이 시는 데서

23 Geoffrey Lloyd and Nathan Sivin (2002), *The Way and the Word: Science and Medicine in Early China and Greece*, Ithaca: Yale University Press, pp. 253-271.

24 『東醫寶鑑』「乳/男女乳腎爲根本」.“女人屬陰，陰極則必自下而上衝，故乳房大而陰戶縮也。男子屬陽，陽極則必自上而下降，故陰莖垂而乳頭縮也。”

25 『素問』「陰陽應象大論」.“岐伯曰，地爲人之下，太虛之中者也。帝曰，憑乎？岐伯曰，大氣舉之也。”；『素問』「五運行大論篇」.“陰陽者，萬物之能始也。故曰，陰在內，陽之守也。陽在外，陰之使也。”；『東醫寶鑑』「虛勞/人身陽有餘陰不足」.“天爲陽，而運於地之外，地爲陰，而居乎中，天之大氣舉之。”

26 예를 들면, 다음에서 보인다. 『東醫寶鑑』「診脉/老少男女異脉」.“男子左脉強而右脉弱，女子右脉強而左脉弱。”；“肺主氣居右，男以氣爲主，男子病右脉充於左者，有胃氣也，病雖重可治。心主血居左，女以血爲主，女子病左脉充於右者，有胃氣也，病雖重可治。”；許任，『鍼灸經驗方』「小兒」.“又危急難救，灸兩乳頭三壯，男左女右。”

확인된다. 하지만 ‘좌천’(左遷), ‘좌고’(左顧), ‘좌임’(左衽), ‘좌도’(左道: 邪道, 妖術)라는 용어는 좌를 낮춰보는 사례다. 남좌여우는 좌혈우기(左血右氣)나 좌승우강(左升右降)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체 내부 구조는 좌우가 비대칭일 뿐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왼쪽에서는 혈병(血病), 오른쪽에서는 기병(氣病)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sup>27</sup> 이는 음양 배속의 관점에서 다음 절에서 논할 ‘여자는 혈(血), 남자는 기(氣)’라는 말과 상충하는 듯하지만, 음양 체용(體用)의 관계로 설명하곤 한다.<sup>28</sup>

### 3. 생식(生殖)의 몸: 여혈남정(女血男精)/남녀기혈(男女氣血)

인간의 몸에 대한 시선을 천지 우주에서 속세간 현실로 옮기면 어떨까? 먼저, 진찰 시 부인은 월경이나 임신을 자세히 묻고, 남자는 방로(房勞) 즉 성병이나 성생활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침이 보인다.<sup>29</sup> 이는 생생의 몸이 좀 더 구상화되어 자손을 생산하는 생식의 몸이 되면서 남녀의 몸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학적 인식은 “부인은 혈(血)을 주인으로 삼고, 남자는 정(精)/기(氣)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언설로 요약된다.

남자는 정(精)을 주인으로 삼고, 여자는 혈(血)을 주인으로 삼는다. 그러

27 『東醫寶鑑』「風/手足癱瘓」에 따르면, 왼쪽 반신 마비는 血虛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四物湯을 위주로 쓰고, 오른쪽 반신 마비는 氣虛로 인한 것으로 四君子湯과 二陳湯을 활용한다.

28 박승미 외(2001), 「韓醫學의 左右理論에 關한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18(1), pp. 88-89; 이인수·윤창렬(2006),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1), pp. 58-59.

29 『東醫寶鑑』「辨證/男女病因」, “凡病男子必審房勞, 女人先問經孕.”; 아사다 소하쿠(2016), 성기서·김용백 편역, 『橘窓書影: 물오약실방합구결과 함께 읽는 淺田宗伯 치험록』, 과주: 물고기숲, pp. 39-40.

므로 정이 왕성하면 아내를 그리워하고 혈이 성하면 아이를 뱉 수 있다.<sup>30</sup>

여인은 혈을 주인으로 삼는다. 혈이 왕성하면 경도가 고르니 자식과 신체의 성쇠가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인의 병을 치료할 때는 마땅히 경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sup>31</sup>

조경문 [주: 무릇 부인을 치료할 때는 모름지기 먼저 경도를 고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첫머리로 삼는다.]<sup>32</sup>

우주적 담론에서의 음(陰)과 양(陽)이 다시 혈(血)과 기(氣), 경수(經水: 月經血)와 양정(陽精)으로 분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자는 혈(血)/경도’, ‘남자는 기(氣)/정(精)’이라는 격언이 출현한 것이다.<sup>33</sup> 이때의 혈과 정은 각기 월경과 정액도 포괄하는 것으로, 대체로 자손을 생산하는 인간의 생식력에 시선을 두는 논설에서 보이는 까닭에 이를 생식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혈남정이나 남녀기혈이라는 언표는 남녀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기법을 보여 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성별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먼저, 기는 바람에, 혈은 물에 비유하며, 기는 혈의 통솔자고 혈은 기의 모체라는 설명을 보자.<sup>34</sup> 이는 혈 관련 질병을 다룰 땐 응당

30 『醫方類聚』「養性門三」.“男子以精爲主, 女子以血爲主, 故精盛則思室, 血盛則懷胎.”

31 『景岳全書』「婦人規/經脈類」.“女人以血爲主, 血王則經調, 而子嗣·身體之盛衰, 無不肇端於此, 故治婦人之病, 當以經血爲先.”

32 陳自明, 『婦人大全良方』「調經門」.“「調經門」[凡醫婦人, 先須調經, 故以爲初]”

33 『女科經綸』「月經門」.“『產寶百問』曰: 男子生於寅, 寅屬木, 陽中有陰, 故男子得八數. 女子生於申, 申屬金, 陰中有陽, 故女子得七數. 男以氣爲主, 八八則卦數已盡, 盡則陽精痿. 女以血爲主, 七七則卦數已終, 終則經水絕, 衝任虛衰, 天癸絕, 而地道不通, 而無子.”

34 楊士瀛, 『仁齋直指方』「血營氣衛論」.“夫血譬則水也, 氣譬則風也, 風行水上, 有血氣之象焉. 蓋氣者, 血之帥也.”

기를 다스리는 약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선양후음’(先陽後陰) 및 ‘양생음장’(陽生陰長) 기법과 맥을 같이한다.<sup>35</sup> 또한 기는 독립된 ‘일기(一氣)’로서 만물을 화생하는 원동력으로도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남녀기혈의 상징적 관계는 여성의 수동성과 낮은 위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는 다른 서술도 보인다. 기와 혈은 각기 위기(衛氣)와 영혈(營血)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탁한 위기는 맥관 밖을 다니면서 맥관 안을 지나는 정미로운 영혈을 호위한다.<sup>36</sup> 이때는 오히려 기가 혈의 수호자, 혈이 기의 통솔자가 된다.<sup>37</sup> 유사하게 기는 백성에, 혈은 신료에 비유하기도 한다.<sup>38</sup> 기는 음식 영양분을 흡수하는 비위(脾胃) 기능이나 기를 주관하는 폐(肺)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반면, 혈은 정지(情志) 즉 감정을 통솔하는 심(心)과 연계시키기도 한다.<sup>39</sup> 심은 여타 장부를 거느리는 군주로 유비되는 몸의 중심이었다. 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를 손봐야 하고, 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을 보하라는 언설도 보인다.<sup>40</sup> 이런 까닭

- 35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聖愈湯」.“故人之一身，調氣爲上，調血次之，是亦先陽後陰之意也.”；『仁齋直指方』「血營氣衛論」.“血脫有生血之機，必先補氣，此陽生陰長，血隨氣行之理也.”
- 36 『靈樞』「五亂」.“岐伯曰，清氣在陰，濁氣在陽，營氣順脈，衛氣逆行.”；『素問』「痺論」.“營者，水穀之精氣也。和調於五臟，灑陳於六腑，乃能入於脈也。故循脈上下，貫五臟，絡六腑也。衛者，水穀之悍氣也，其氣慄疾滑利，不能入於脈也。故循皮膚之中，分肉之間，熏於膏膜，散於胸腹。”
- 37 『萬病回春』「萬金一統述」.“其氣沖和，則氣爲血之帥，血隨之而運行，血爲氣之守，氣得之而靜謐.”；唐宗海，『血證論」.“臟得血而能液也，腑得血而能氣也。”
- 38 『東醫寶鑑』「身形/人身猶一國」.“神猶君也。血猶臣也，氣猶民也。知治身則能治國矣。”
- 39 『東醫寶鑑』「診脈/老少男女異脈」.“肺主氣居右。男以氣爲主，男子病右脈充於左者，有胃氣也。病雖重可治。心主血居左。女以血爲主，女子病左脈充於右者，有胃氣也，病雖重可治.”；『景岳全書』「婦人規/子嗣類」.“婦人所重在血，… 蓋心主血，養心則血生；脾胃主飲食，健脾胃則氣布，二者胥和，則氣暢血行，此情志·飲食又當先經脈而爲之計者，亦無非補陰之源也。”
- 40 『東醫寶鑑』「氣/用藥法」.“故治法曰，女人宜調其血，以耗其氣，男子宜調其氣，以養其血.”；李梴，『醫學入門』「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蓋女子以血爲主，而氣爲之本，氣順則精活，氣滯則血死。故欲治血，當先理氣；男子以精爲主，而血爲之本，血盛則精強，血衰則精德。故欲益精，當先補血。”

에 혈과 기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무리라고 언명하는 데까지 이른다.<sup>41</sup> 남녀기혈에서 기는 양정(陽精)에, 혈은 경수(經水)와 연관되는 까닭에 “남녀기혈” 관념은 “여혈남정” 인표와도 일면 상통한다. 이때도 경도를 조절하거나 혈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혈의 근본인 기를 통하게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정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는 정이 혈이므로 먼저 혈을 보해야 한다.<sup>42</sup>

이러한 생식의 몸에서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의료화된 정도다. “부인은 혈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경구를 중심으로 송대에 부인 전문분과가 등장했으며, 이때의 혈은 정도에 초점을 둔다. 송대 이후에는 정도가 단지 임신과 출산이라는 맥락을 넘어 여성성을 대표하는 의학적 상징이 된 것이다.<sup>43</sup> 정도에 대한 이러한 의학적 인식의 변화는 의료의 시선과 자원이 여성의 몸과 건강에 미치는 의료 전문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젠더의 측면에서 보면 동시에 남녀의 성별화 과정을 의미한다. 동서고금 문화지형에 따라 월경은 오염, 부정(不淨), 혐오, 실패, 금기 등의 술어로 이해되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영묘한 신성성을 지닌 것으로 숭배되기도 했다.<sup>44</sup> 그렇다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경험됐을까? 정도 자체는 의학 텍스트에서 우주론적 과정으로 묘사되지만, 흥미롭게도 약물로서 월경수(月經水)는 온역(溫疫)이나 홍역 같은 역병이나 열병 및 태열 등을 치료할 때 요긴하게 활용했던 자원이자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기도 했다. 치료 약물로서 월

41 『靈樞』「營衛生會」. “夫血之與氣，異名同類.”; 『仁齋直指方』「男女氣血則一論」.

42 『醫學入門』「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 “蓋女子以血爲主，而氣爲之本，氣順則血活，氣滯則血死。故欲治血，當先理氣；男子以精爲主，而血爲之本，血盛則精強，血衰則精憊。故欲益精，當先補血。”

43 Furth (1998).

44 박이은실(2015), 『월경의 정치학: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든 인류의 역사』, 파주: 동녘; 왕하영(2020), 「여성 월경(月經 Menstruation)의 유학(儒學)적 맥락」, 『한국여성철학』 34, pp. 1-34.

경수의 쓰임은 의서에 수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sup>45</sup> 실제 활용 사례는 사대부의 문집이나 일기 그리고 의원 자신의 임상경험을 기록한 의안(醫案)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17세기 초 조선의 학자 권별(權黻, 1589~1671)의 일기는 의료자원이 한정된 향촌에서 열성 전염병이 돌아 친족과 노복들이 쓰러져 가는 상황에서 월경수를 자주 활용하면서 달포 넘게 사투를 벌여 회복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sup>46</sup> 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의관 이수기(李壽祺, 1664~c.1750)와 의원 임정(任理, 1684~1754)의 의안 역시 목숨을 다투는 열성 감염병에 월경수를 쓴 사례 여럿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월경수는 약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쓴 게 아니라 당당한 치료 약물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 이때 월경혈은 단지 근대적 관점에서 깨끗함이나 더러움을 따질 ‘잉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仁)의 실현 도구’였다.<sup>47</sup>

건강하고 이상적인 생식의 몸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여성은 경도를 고르게 하는 조경(調經)에, 남성은 정(精)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을 보존하는 장정(藏精)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기를 통하게 하고 혈을 기르는 전략[調氣養血/陽生以陰長]을 취한다. 예를 들면, 혈병 치료의 주약인 사물탕을 활용하되 사군자탕 같은 보기약을 겸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양정(陽精)의

45 許浚, 『辟疫神方』「藥方/月經水」.“月經水: 治天行瘟疫, 陰熱血熱, 解熱毒消癘疹。取年少婦人月經衣, 水漬飲之。”; 任彥國, 『治腫指南』「溫疫」, “方痛極熱, 不省人事, 先針百會·上星·額角·風池·耳前髮際, 亦針舌下絲中兩傍。或頭維, 觀病勢針之。又服月經水和水, 及服清心元一丸, 甚佳。”

46 권복규(1999), 「조선 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6-47.

47 약물과 관련된 고래의 의학적 쟁점은 약물의 기원에 따른 ‘淨/垢’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惡傷物命’ 과 ‘假品’이 문제였다. 즉 살아있는 동물을 해하면서까지 약으로 쓰는 데 대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상업화가 확대되면서 출현한 저질 혹은 가짜 약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월경혈의 경우,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 및 접근성이 매우 높은 줄기세포(MenSCs)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활용해 곧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모를 막고 음혈(陰血)을 늘리는 전략[陽氣閉密/培陰以藏陽]을 취한다. 이때 보음제인 육미지황원이나 신기환 계열 방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으로 구성된 사물탕을 활용할 때, 남성의 경우 자음(滋陰) 기능이 두드러진 숙지황을 배가하고 진음을 소모시킬 수 있는 주색을 경계시키는 반면, 여성의 경우 행기(行氣) 효능도 겸하는 천궁을 배가하고 기혈의 발산과 순환을 돕도록 움직이는 활동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sup>48</sup> 이는 남녀를 음양 속성으로 넓게 나눠 파악하면서 성차와 생활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처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원칙을 떠나 임상 실제에서는 과혈(破血) 대 보혈(補血), 보기(補氣) 대 이기(理氣), 익기(益氣) 대 자음(滋陰) 등 상호 반대되는 선택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기적인 혈의 손실을 겪는 여성 그리고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남성이라는 인식 아래 병증을 단순히 허증(虛證)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인별 병정(病情)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남녀 간 성차 자체보다는 한열허실(寒熱虛實) 등 개인별 변증이 진료에서 더 결정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이 이어져 청대에는, 분과 전문의가 기치로 내세웠던 ‘여혈남정’이나 ‘남녀기혈’의 차이보다는 남녀 간 유사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유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sup>49</sup>

이러한 생식의 몸이 출현한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펠스가 잘 보았듯, 경도와 조경을 중심적 항목으로 하는 부인과가 출현한 것은 송대였다.<sup>50</sup> 이 시기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생산[女工]에서 생식/재생산[產母]으로 바뀌는 때이기도 했다.<sup>51</sup> 송대 이후 의서에서 “여

48 『醫學入門』「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熱地二錢半，滋陰生血，臍痛非此不除，肺經藥也，秋月宜倍用之，男子加此。川芎二錢，清陽和血行血，頭痛非此不除，肝經藥也，春倍用之，女人亦倍，水煎溫服。”

49 Wu (2010), pp. 15-53.

50 Furth (1998), pp. 59-93.

51 Francesca Bray, (1997),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9-133, esp., pp. 130-131.

혈남정” 언설이 편제된 곳은 대체로 「구사」(求嗣)문인데, 여기에서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력 즉 여성의 회임 및 출산 능력과 남성의 성적 능력 보존 및 향상을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1608)의 경우 임부/산모와 태아의 병을 논하기에 앞서 「구사」편을 첫머리에 놓고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 쓸 약물 및 뜸 요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식의 몸은 개인의 건강보다 가문과 국가라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임무 [續嗣/壽國脉]를 다하는 재생산의 기능에 역점을 둔 의학적 몸이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 4. 양생(養生)의 몸: 신형삼보(身形三寶)

조선중기 허준(許浚, 1539-1615)이 편술한 『동의보감』 역시 ‘생생의 몸’, ‘생식의 몸’ 그리고 다음 절에서 다룰 ‘감정의 몸’과 관련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동의보감』은 선학의 의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질투가 많다거나 감정에 취약하다는 글을 신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아를 남아로 변화시키는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보감』을 저술한 목적과 편제상 특징을 검토해 보면, 허준은 이와는 다른 의학적 몸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경도를 여성 몸의 대표적 표지로 간주했던 통념적 인식과 달리 허준은 의도적으로 경도를 부인과에서 이탈시켰다는 점이다. 『동의보감』은 크게 (순서상) 내경(內景)편, 외형(外形)편, 잡병(雜病)편,

52 국민은 국가의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 및 보건 정책을 입안하거나, 적정 인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자녀 장려책을 펴는 현대 국가의 사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53 『동의보감』은 조선중기 이후 의사와 사대부 양반을 비롯해 조선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의학 텍스트였다[김호(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pp. 251-180; 신동원(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파주: 들녘, pp. 313-334].

탕액(湯液)편, 침구(鍼灸)편 다섯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인」문은 잡병편 아래에 뒀다.<sup>54</sup> 특이하게도 허준은 경도 관련 논설을 「부인」문이 아닌 내경편 아래 「포」(胞)문에 편제함으로써 경도를 부인과에서 탈리시켰다.<sup>55</sup> 이외에도 유방을 다루고 있는 「유」(乳)문과 외생식기를 다루고 있는 「전음」(前陰)문 역시 「부인」문에서 다루지 않고 외형편 아래에 배치했다. 주의컨대 이처럼 경도, 유, 전음을 「부인」문에서 분리해,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강조하며 남녀를 함께 다룬 사례는 허준 이전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허준은 이러한 편제 방식 및 관련 의설의 재배치를 통해 “생식의 몸”과는 다른 의미를 자궁 및 경도에 부여했다.

포(胞)는 일명 적궁(赤宮), 일명 단전(丹田), 일명 명문(命門)이라고도 한다. 남자는 여기에 정(精)을 저장하고 있어서 화생(化生)을 베풀 수 있고, 부인은 포(胞)를 달고 있어서 잉태를 할 수 있으니, 둘 다 모두 생화(生化)의 원천이다. 오행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수(水)도 아니고 화(火)도 아니다. 포는 천지의 다른 이름이니, 곤토(坤土)가 만물을 낳는 것을 본뜬 것이다.<sup>56</sup>

내경편 「포」문에 편제된 위 인용문은 여성의 자궁이 여성만의 포지가 아닌 남성에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포” (胞)란 이름으로 포괄했다. 이를 남녀에 상관없이 모두 생명 활동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경도를 이러한 포의 기능 중 하나로 소개함으로써 경도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해 제시한

54 편제상 『동의보감』의 전체적인 특징 및 다른 의서와의 비교는 신동원(2015), pp. 250-253을 참조할 것.

55 『동의보감』의 이러한 특징은 이전에도 종종 지적돼 왔지만, 이것이 養生術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교사의 관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구한 것은 중국 의학사가 Wu였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Wu (2016)의 연구를 참조할 것.

56 『東醫寶鑑』 「胞/胞形象」. “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男子藏精施化, 婦人繫胞有孕, 俱爲生化之源. 非五行也, 非水, 亦非火. 此天地之異名也, 象坤土之生萬物也.”

것이다. 허준이 제시한 자궁은 “달거리를 하는 명문/단전”이었다.<sup>57</sup> 이런 의미에서 경도는 단지 회임과의 연관성 위에서만 존재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성성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경도에 따라다니던 취약성, 오염성, 실패한 사건 등의 이미지를 불식하는 셈이다. 또한 허준은 ‘전음’과 ‘유’를 남녀 간 상호 대등한 천지음양 생화 활동의 결과물로 제시했다.<sup>58</sup> 이는 여성 음호(陰戶)가 규범으로서 남성 외신(外腎)의 결핍이나 변이라는 남성주의적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허준이 제시한 인체관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의보감』이 지향했던 의학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한다. 도교 연단술의 색채가 짙은 적경, 단전, 명문을 ‘포’의 이칭으로 제시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것은 양생 의학이었다. 「서문」 및 「집례」(集例)에 따르면 『동의보감』 프로젝트의 의제는 당시 변쇄한 중국 의학을 정리하고 고대 성인의 참된 의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 치료가 아닌 양생 중심의 예방 의학을 추구하는 것이었다.<sup>59</sup> 이런 까닭에 허준은 질병 범주를 기준점으로 삼아 의서의 목차를 구성했던 관례와 다르게, 『동의보감』에서 잡병, 탕액, 침구 편보다도 양생과 관련된 내경 및 외형 편을 이들 앞에 배치하는 특징적 편제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런 구성 때문에 경도, 유, 전음이 「부인」문에서 나와 내경 및 외경 편으로 전진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 『동의보감』의 권지일(卷之一)을 차지하는 편목은 내경편의 「신형」(身形), 「정」(精), 「기」(氣), 「신」(神)이다. 이러한 편제 역시 다른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의보감』의 특징이다. 『동의보감』이 지향한 의학적 몸은 인신(人身)의 형기(形氣)를 양생(養生)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신형」문에서 시작한다. 정(精)은 물질적 정화, 기(氣)는 변화와 운동의 원동력, 신(神)은 정신이나 의식과

57 Wu (2016)는 흥미롭게도 논문 제목에 “The Menstruating Womb”이란 표현을 썼다.

58 『東醫寶鑑』 「乳/男女乳腎爲根本」, “女人屬陰, 陰極則必自下而上衝, 故乳房大而陰戶縮也. 男子屬陽, 陽極則必自上而下降, 故陰莖垂而乳頭縮也.”

5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동원(2015), pp. 159-165를 참조할 것.

관계가 깊은데, 이들 셋은 도교에서 삼보(三寶)로 불리는 것으로 인체 안을 흐르는 핵심적인 구성체이자 활력소다. 허준은 이들 신형(身形) 및 삼보를 인체의 핵심 요소로 상정하고, 수련을 통해 정(精)·기(氣)·신(神)이 상중하 삼단전(三丹田)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는 이상적인 몸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sup>60</sup> 이런 맥락에서 자궁은 단지 생식을 위한 부속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진인(真人)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몸의 핵심 구성체였다. 이를 “양생의 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양생의 몸은 지향점이나 실천론 측면에서 볼 때 생생의 몸이나 생식의 몸과는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동의보감』에 구현된 양생의 몸은 환단내련(還丹內煉), 청정수양(淸靜修養)의 수련을 통해 연년익수(延年益壽),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별천지의 진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권지일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인체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정·기·신 삼보, 이들이 머무는 곳집인 뇌(腦)·심(心)·포(胞) 삼단전, 그리고 정(精)·기(氣)가 오르내리는 도로인 옥침관(玉枕關)·녹로관(轆轤關)·미려관(尾閭關) 삼관(三關)을 제시한다. 이어서, 정기(精氣)가 삼관, 임·독맥(任督脈), 그리고 삼단전을 위아래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수련을 통해 단(丹)을 만드는 여러 환단내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액환단(金液還丹), 복식옥천(服食玉泉), 내관(內觀), 태식(胎息), 좌관(坐關), 반운(搬運), 복식(服食)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마음을 비우고 도(道)에 합일하는 방식의 청정수양을 강조하기도 한다. 약물로는 예를 들면 생지황, 인삼, 백복령, 꿀로 구성된 경옥고를 들 수 있는데, 경옥고의 목표는 전정보수(填精補髓)하고 조진양성(調眞養性)해서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달한 인간상으로 진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교에서) 진인의 상은 탈속 자연에 합일함으로써 자유롭게 소요하는 개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0 박석준(2016),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 동의보감 정기신(精氣神) 강의』, 바오출판사; 신동원(2015), pp. 222-234; 김호(2000), pp. 188-196.

이러한 양생의 몸이 『동의보감』에 구현된 배경으로는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의 양생 문화가 확산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당시는 양반 사대부 사이에서 양생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대부들은 대체로 도교의 신선술 가운데 유교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신비주의적 요소와는 거리를 두면서 성리학의 치심(治心) 수양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생술을 수용했다.<sup>62</sup> 이런 지적 분위기 속에서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는 양생을 의술보다 앞에 두고 『동의보감』을 편찬할 것을 하명한 것이었다. 사대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던 허준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는 “양생”의 의미를 명대 도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 특히 허준은 명대의 신비주의적 신선술과는 거리를 두면서 『동의보감』에 양생 의학 담론을 구축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녀 성차가 없는 의학적 몸을 선보인 것이다.<sup>63</sup> 덧붙여 말하자면, 『동의보감』의 편제를 충실히 따랐던 조선의 『제중신편』(濟衆新編, 1799)과 『의종손익』(醫宗損益, 1868)을 제외하면, 자궁이나 경도를 여성만의 고유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 의서는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남녀 간 질병이나 치법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명·청대의 대표적인 종합 의서인 『경약전서』(景岳全書, 1624)나 『의종금감』(醫宗金鑑, 1742)도 이와 다르지 않다.<sup>64</sup>

61 신동원(2015), pp. 89-111; 김호(2000), pp. 126-174.

62 신동원(2015), pp. 96-111; 김호(2000), pp. 150-174; 김성수(2006), 「鄭維仁의 『頤生錄』 연구」, 『경희사학』 24, pp. 133-155; 성호준(2022), 「정유인(鄭維仁)의 보양론(保養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pp. 163-188.

63 젠더 관점에서 본 명대 도교 양생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Furth (1998), pp. 187-223을 참조할 것.

64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 「婦科總括」, “男婦兩科同一治, 所異調經崩帶, 嗣育胎前並產後, 前陰乳疾不相同.”

## 5. 감정의 몸: 칠정부침(七情浮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감정과 욕심은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고, 의사의 임상 경험기록물인 의안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자주 언급된다. 한대에 만들어진 『황제내경』도 감정이 몸 안의 기를 움직일 수 있고 오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언명하고 있다.

모든 병은 기(氣)에서 생깁니다. 성나면 기가 위로 솟고, 기쁘면 기가 늘어지고, 슬프면 기가 사그라들고, 두려우면 기가 아래로 꺼지고, 추우면 기가 거둬지고, 더우면 기가 새 나가고, 놀라면 기가 흐트러지고, 힘쓰면 기가 닳고, 생각하면 기가 멎히니 구기(九氣)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sup>65</sup>

또한 기쁨이 지나치면 심(心)이 상하고, 성냄이 지나치면 간(肝)이 상하고, 생각이 지나치면 비(脾)가 상하고, 슬픔이 지나치면 폐(肺)가 상하고, 두려움이 지나치면 신(腎)이 상하고, 근심이 오래되면 기(氣)가 멎히고, 갑자기 놀라면 기(氣)가 오그라든다.<sup>66</sup>

특히, 짐승과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꾸려 나갔던 먼 옛날과 달리 인간의 생활환경과 인간관계망이 복잡해진 고대 문명시대에 이르러서는 칠정(七情)·육욕(六慾)이 오장과 형체를 훼손해 병이 깊어졌다고 말한다.<sup>67</sup> 이

65 『素問』「舉痛論」.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66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癰疽總論歌」. “又有喜過傷心, 怒過傷肝, 思過傷脾, 悲過傷肺, 恐過傷腎, 憂久則氣結, 卒驚則氣縮.”

67 『素問』「移精變氣論篇」. “往古, 人居禽獸之間, 動作以避寒, 陰居以避暑, 內無眷慕之累, 外無伸宦之形. 此, 恬憺之世, 邪不能深入也. … 今之世, 不然, 憂患緣其內, 苦形傷其外.” 진 근대 시기 감정을 대표하는 용어로는 七情, 六慾, 五志, 情志 등 다양했다. 대체로 七情은 喜·怒·哀·樂·愛·惡·欲 또는 喜·怒·憂·思·悲·驚·恐을 지칭하고, 六慾은 色·聲·香·味·觸·法을 말하고, 五志는 喜·怒·思·憂·恐을 이른다. 氣의 측면을 강조할 경우 七情을 七

러한 인간의 몸을 사회의 인간관계망 속에서 작동하는 ‘감정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병을 진단할 때는 스트레스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칠정의 부침(浮沈) 즉 드러남과 숨겨짐도 잘 살펴야 한다. 감정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질환을 칠정상[七情傷/七情所傷] 또는 정지상(情志傷)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의 몸’에도 남녀 간 차이가 드러난다. 바로 여성은 속이 좁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칠정상에 취약하다는 속설이 그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논리는 환경의 영향, ‘부인속음’(婦人屬陰), ‘부인성편’(婦人性偏) 셋을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요인이다. 명대 의사 장개빈(張介賓, 1563~1640)은 여성의 질병은 남성에 비해 치료하기 힘들다는 속언에 대해 사담하며 해명하기를, 남녀의 병은 본디 같지만 여성이 처한 ‘사정’이 남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연하기를, 여성은 그윽한 곳에 머물러 자주 침울해하지만, 언제나 이를 펼쳐 털어낼 바가 없어서 음성(陰性)이 치우치게 억눌리는[陰性偏拗] 까닭에 해소하는 게 번번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본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sup>68</sup> 이외에도 여승, 결혼하지 않은 처자, 과부 등은 부인과 질병의 성격이 다르므로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병과는 달리 다뤄야 한다는 언설도 질병 발생 및 양태의 환경적 요인을 짚고 있는 셈이다.<sup>69</sup> 이때, 배우자를 잃은 홀아비나 결혼하지 못한 총각도 외증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병기(病機) 및 처치법은 여성의 경우와 같다.<sup>70</sup>

氣라고도 표현한다.

68 『景岳全書』「婦人規/總論」, “不知婦人之病, 本與男子同, 而婦人之情, 則與男子異. 蓋以婦人幽居多鬱, 常無所伸, 陰性偏拗, 每不可解. 加之慈戀愛憎, 嫉妒憂患, 罔知義命, 每多怨尤, 或有懷不能暢遂, 或有病不可告人, 或信師巫, 或畏藥餌. 故染著堅牢, 根深蒂固, 而治之有不易耳, 此其情之使然也.”

69 『東醫寶鑑』「婦人/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70 『景岳全書』「雜證謨/虛損」, “凡師尼·室女·失偶之輩, 雖非房室之勞, 而私情繫戀, 思想無窮, 或對面千里, 所願不得, 則慾火搖心, 真陰日削, 遂致虛損不救.”; 『女科經綸』「月經」, “若室女童男, 積想過度, 多致勞損, 男子則神色消散, 女子則月水先閉. 蓋憂愁思慮, 則心傷而血竭, 且心病則不能養脾, 故不嗜食; 脾虛則金虧, 故發嗽; 腎水絕則木氣不榮, 而四肢乾痿, 故

둘째, 부인은 음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자는 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주 울체되기 쉬워 기병(氣病)이 많고, 남자는 양에 속하기 때문에 흠어지기 쉬워 기병이 적다고 한다.<sup>71</sup> 즉 기병 형태가 많은 칠정상에 여성이 취약하다는 말이다. 대칭적으로, 남성은 양이어서 기가 잘 흠어져 기허(氣虛)가 되기 쉬우므로 방로로 인한 허손 및 위증(痿證)에 취약하다. 또한 양의 날쌔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면 함부로 지껄이고 날뛰는 질환인 광증(狂症)으로 이행되기도 쉽다.<sup>72</sup> 한마디로 여성은 정체되거나 막히는 병을 얻기 쉽고, 남성은 숫구치거나 터지는 병을 앓기 쉽다. 이런 점에서 여성은 기를 소산시키기 위해 이기(理氣: 行氣/降氣)하는 전략을 쓰고 남성은 기를 잡아두기 위해 자음(滋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체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남녀 간 질병 양상의 차이일 뿐 여성이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덧붙여, 장개빈이 언급한 환경요인과 여음남양(女陰男陽)이라는 언표가 함의하는 바를 짚어 보면, ‘치유’의 차원에서 여성의 경우 음적(陰的)인 내실 공간을 벗어나 양적(陽的)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음양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이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부인성편’ 즉 ‘부인은 성격이 편협하다’는 속언이다. 의서에는 이 말에 대한 의학적 논리나 당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남성주의적 편향이 속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속언은 대개 사대부의 글에서 발견되는데 의사의 글에서도 종종 보인다. 조선 의관 이수기는 조생(趙生) 부인의 기질(奇疾)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생이 후사를 위해 별가(別家)를 얻었기 때문에 부인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는 칠정상임을 알아냈다. 이를 두고 논평하면서, ‘부인성편’ 즉 “凡婦人性偏, 難解易於七情之鬱結”이란

多怒. 不可用青蒿·蛇蟲等, 涼血行血, 宜柏子仁丸·澤蘭湯, 益陰血以制虛火也.”

71 虞搏, 『醫學正傳』 「諸氣」, “大抵男子屬陽, 得氣易散, 女人屬陰, 遇氣多鬱, 是以男子之氣病者常少, 女人之氣病者常多. 故治法曰, 婦人宜調其血, 以耗其氣, 男子宜調其氣, 以養其血, 此之謂也. 學者宜致思焉.”

72 『素問』 「生氣通天論」,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陽不勝其陰, 則五臟氣爭, 九竅不通.”

말을 꺼냈다.<sup>73</sup> 여기서 ‘칠정으로 인한 울결은 해역(解易)하기 힘들다’는 말은 앞서 봤듯 장개빈이 올린 화제와 유사하다. 게다가 남편이 새 부인을 얻었기에 분을 참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병이 났다. 이런 점에서 “성편”(性偏)을 장개빈이 말한 “음성편육”(陰性偏拗)의 줄임말 즉 ‘바깥 요인에 의해 음의 성질이 한쪽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남녀의 건강이나 질병 양상의 차이는 남녀의 선형적인 속성이 아니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이수기의 입장과도 부합한다.<sup>74</sup> 하지만 사료에서 보이는 ‘부인성편’ 관련 글은 대부분 ‘여인은 성품이 편벽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성(性)에 비해 정(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교 사회에서 감정은 절제돼야 할 것이지만, 주로 질병을 다루는 의학이 감정의 몸에 개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지를 조절하거나 서창(舒暢)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맞게 해울순기(解鬱順氣)하는 약물치료나 침구요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정변기(移情變氣)라는 용어로 대표되기도 하는 심리요법도 병행한다.<sup>75</sup> 사람이 죽음이나 이별을 겪거나, 바라던 바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귀했던 사람이 빈천해지거나, 사기나 무고를 당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짓눌리거나, 배우자의 외도나 축첩에 맞닥뜨리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실감, 무력감, 배신감, 박탈감, 고립감, 소외감 등이 정도를 넘으면 곧 질병으로 전이된다.<sup>76</sup> 이는 남녀 성차와 상관없다. 그 질병 양상은 다양

73 李壽祺, 『歷試漫筆』의안 76. “凡婦人性偏, 難解易於七情之鬱結.”

74 『歷試漫筆』의안 51. “豈男女胎之有異乎? 都在胎繫堅脆之如何.” 이에 대한 논의는 이기복(2019), 「조선 후기 의학 지식 구성 및 실행 방식의 변화: 18세기 『역시만필(歷試漫筆)』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41(1), pp. 22-23을 참조할 수 있다.

75 移情變氣 및 중국의 심리요법에 대해서는 가노우 요시미즈(1999), 동의과학연구소 역, 『몸으로 본 중국사상』, 조함공동체 소나무, pp. 263-272을 참조; 情志傷에 대한 현대 中醫의 치료방식 및 인류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Yanhua Zhang (2007), *Transforming Emotions with Chinese Medicine: An Ethnographic Account from Contemporar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를 참조할 수 있다.

76 이기복(2022), 「의원의 서사로 본 조선 후기 의료의 사회문화적 풍경」, 『한국문화』 98, pp. 294-295.

하지만, 대체로, 실증인 경우 분심기음, 월국환 등의 방제를 활용해 가슴의 울체를 풀어 주고 기의 움직임은 순조롭게 한다. 생식의 몸에서 ‘당귀’가 대표적인 보혈약으로서 부인의 ‘요약’(要藥)이었다면, 감정의 몸에서는 ‘향부자’가 기병(氣病)의 총사령관으로서 부인의 ‘선약’(仙藥)이다.<sup>77</sup> 심리요법으로는 다독이기, 암시요법, 오지상승(五志相勝) 요법 등이 활용된다. 근원적으로는, 이정역지(移情易志)나 개역심지(改易心志) 즉 삶의 문제를 더 큰 틀 속에서 관조하고 사고 및 처신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감정이 외부로 자연스레 흐르도록 한다. 칠정상 가운데 사회적 규범 및 구조와 관련된 경우, 앞서 조생의 부인 사례처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술회와 서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관습적 정황을 드러냄으로써 정지상을 공동체의 돌봄 및 공감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sup>78</sup> 게다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기를 발월(發越)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정지 서창을 꾸준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절제와 도덕적 수양을 내세우며 사회 규범의 안정화를 지향했던 유교와는 달리 의학은 전통적 규범에 대한 융통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다른 의학적 몸과 달리 감정의 몸은 출현 시기나 조용하는 특정 사조를 논급하기는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 칠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대의 『황제내경』에서부터 보인다. 감정을 여성과 긴밀히 연관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그 시원은 당대의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인은 정(情)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욕(嗜欲)이 많다고 기록했다.<sup>79</sup>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인

77 李時珍, 『本草綱目』「當歸」; 「莎草·香附子」. 의학에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약물 當歸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조할 것. 리전더(2021), 「여성의 필수 약재: 경계를 넘나드는 당귀의 세계사」, 『질병 관리의 사회문화사: 일상생활에서 국가정책까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p. 17-39.

78 이기복(2022), p. 296.

79 孫思邈, 『備急千金要方』「婦人方上/求子第一」. “然而女人嗜欲多於丈夫, 感病倍於男子. 加以慈戀愛憎嫉妬憂患, 染者堅牢, 情不自抑, 所以爲病根深, 療之難差.”

식은 가부장제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교적 이념 및 규범이 향촌민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친 시기는 조선후기였다. 그 간 특별한 의학적 설명 없이 상투적으로 여성이 감정에 민감하다거나 성정이 편벽하다고 간주해 왔다. 감정의 몸에 덧붙여 다니던 이러한 속설을 부정하며 그간의 성차 관련 담론 틀을 바꾼 인물이 있다. 바로 조선말기의 의가 이제마(李濟馬, 1837~1900)다.

## 6 개인성의 몸:性情臟局(性情臟局)

이른바 ‘사상의학’의 토대가 되는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1894)은 인간의 감정을性情, 성행, 성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한 후 이를 의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구조화해 논설하고 있는 텍스트다.<sup>80</sup> 이 책에서 이제마는 사람이 세상을 수용하는 방식과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각 장부의 기능적 차이와 연동시키고, 이러한 인지 및 행동 양상에 따라 장부의 대소 차이가 생겨나 사람의 개인성(個人性)을 특징짓는 것으로 의학적 몸을 정식화했다.<sup>81</sup> 그는 먼저 애·노·희·락(哀怒喜樂)을 각각

80 주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四象醫學은 현재 韓醫學을 구성하는 주요 학파 가운데 하나로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한의학 학술단체가 여럿이다. 『東醫寶鑑』과 함께 『東醫壽世保元』은 韓醫學을 대표하는 의학 텍스트로서 학위논문을 비롯한 관련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출현한 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東醫壽世保元』은 한국에서 현재 독보적으로 다수인 翻譯註解書를 자랑한다. 李濟馬 생존 시 이미 문과가 형성돼 있었으며 『東醫壽世保元』은 1901년부터 1941년까지 한국 및 중국에서 7차례나 간행됐다. 일제 강점기 한의학 교육기관이었던 公認醫學講習所(1912~1919)의 교과목으로 ‘四象學’이 올라와 있다. 20세기 전반 사상의학이 수용되는 과정은 김성수(2019), 「20세기 한의학의 ‘신’(新)고전 탄생: 이제마(李濟馬)와 사상의학(四象醫學)」, 『인문논총』 76(3), pp. 251-285를 참조할 것.

81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학적 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분석은 Yi, Kiebok (2018), “Yi Chema and the Psychosocial Body in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47, pp. 55-92; 이기복(2014), 「동무 이제마

성(性)과 정(情)으로 나뉘 희성/희정, 노성/노정, 애성/애정, 낙성/낙정을 제시했다. 이때 성(性)은 외부 사건을 인지하는 특성 즉 인지 패턴과 관련이 있고, 정(情)은 이에 응해 행동하는 특성 즉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다. 이들 애노희락 성정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설명어는 인간의 성향, 태도, 욕심, 재주, 능력 등과 관계된 어휘다.<sup>82</sup> 또한 이·목·비·구(耳目鼻口)를 외부 정보를 인지하는 매개 기관으로, 그리고 폐·비·간·신(肺脾肝腎)을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중심 기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작업 위에 인지 및 행동 특성으로서의 애노희락 성정(性情)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폐비간신 장국(臟局) 둘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몸을 정식화한 후, 그 유형 넷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사상인으로 통칭했다.

실천론과 관련해 이제마는 사상인이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개인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재능을 발양할 때 이상적인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질병은 애노희락 성정이라는 세상 속 일상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까닭에, 누구나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건강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sup>83</sup> 자신만의 개별성 즉 개인성을 잘 알고 이를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sup>84</sup> 이런 점에서 그가 제시한 성정 중심의 몸은 ‘개인성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마는 사심(邪心), 태행(怠行), 지인(知人), 행신(行身) 등의 개념적 장치를 동원해 의론을 이어 전개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태

(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3-95를 참조할 것.

82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이렇다: 天時, 世會, 人倫, 地方; 事務, 交遇, 黨與, 居處; 識見, 威儀, 材幹, 方略; 籌策, 經綸, 行檢, 度量; 驕心, 矜心, 伐心, 夸心; 擅心, 侈心, 懶心, 慾心. 李濟馬의 또 다른 저술 『格致藁』에 실려 있는 「天時」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天時조차도 대부분 지상 세계의 인간 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83 이 단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Yi (2018); 이기복(2014), pp. 95-105.

8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才能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才能,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생적 장점을 확대하여 세상에 나아가되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잘 다듬어 주의하면 부족한 부분이 장점으로 절로 채워져 절세의 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85</sup> 다시 말하면, 건강한 몸의 완성은 타자인 우주나 자연에 조응한다거나 타인의 재능을 선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개인성 즉 천하 세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특징점을 잘 살리는 데 있다.<sup>86</sup> 이런 맥락에서 이제마는 세상 사람의 직업적 다양성과 개성의 실현 그리고 사회에서의 공존동생을 강조하기도 했다.<sup>87</sup> 약물 치료법을 말하자면, 쓰는 약이 사상인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육계, 방풍, 갈근, 오가피는 각각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에 쓰는 대표적 약물이다. 부인과의 핵심 약물로 칭해지던 당귀와 향부자는 남녀 상관없이 소음인에 쓰는 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의학적 사유는 ‘의학적/생물학적 몸’과 ‘사회적 역할/위계’ 상호관계에 대한 논리적 정식화 그리고 의학적 해명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다.

첫째, 범주를 재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제마는 사상인 범주 즉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넷을 의학에서의 제일 범주로 삼았다. 그간의 의학 텍스트가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의학 체계를 세운 데 비해서,<sup>88</sup> 이제마는 ‘인물’ 범주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아래에서 병증 및 약리를 논설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별, 나이, 인종을 불문하고 사상인 범주 아래 세상 모든 사람을 포괄했다는 점이다. 『동의수세보원』은 남녀노소를 다 다루고 있지만, 부인문이나 소아문을 따로 두지 않았다. 말인즉, 개인성의 몸에

85 이기복(2014), p. 100.

86 李濟馬는 四象人을 宇宙가 아닌 天下에 위치시켰다. 『東醫壽世保元』에 ‘宇宙’, ‘天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天下’라는 말은 11회나 나온다.

87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少陰陽人, 識見才局, 各有所長, 文筆射御歌舞揖讓, 以至於博奕小技, 細鎖動作, 凡百做造, 面面不同, 皆異其妙, 儘乎衆人才能之浩多於造化中也.”

88 許浚의 『東醫寶鑑』이 그나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許浚은 신체 부위를 범주로 삼은 「內景篇」과 「外形篇」을 새로 도입해 『東醫寶鑑』의 앞머리에 편제했다.

는 남녀 성차가 없다. 사상인 중심의 의학 체계는 성차에 따른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그간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내성적이고 여자가 외향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비정상적인 사례라거나 남녀 규범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남녀 성차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의 다양한 특질 즉 사상인별 체질이 더 중요하다.<sup>89</sup>

둘째, 범주 간 위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제마는 자신의 논설에서 사상인 간 위계를 세우지 않았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임상 실체를 논하고 있는 병증론 부분은 편제상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순서로 구성돼 있다. 이는 위계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의약 경험 축적의 정도에 따라 편제한 것이다. 병증론 외에 인체관을 다루고 있는 총론적 논설에서도 각 사상인을 언급할 때 특정 순서가 아닌 상호 순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태양·소양·태음·소음 사상(四象)은 『주역』에 나오는 어휘로서 음양 이항의 반복적 분류라는 점에서 차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지만, 태양인·소양인·태음인·소음인 사상인 간에는 그러한 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사상인에 대한 간단한 규정은 폐비간신 장국의 대소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보이지 않는다. 성격이나 성향을 중심으로 사상인의 다소 복잡한 특성을 현대어로 단순하게 풀어 본 사례를 들자면, 태양인은 직관이 강한 사람, 태음인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 소양인은 감각이 섬세한 사람, 소음인은 사고가 치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sup>90</sup> 이 기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각 사상인의 특질은 차이가 있을 뿐 단지 좋음과 나쁨으로 단순하게 위계화할 수는 없다.

셋째, 우주론적인 사유와는 거리를 뒀다는 점이다. 의학에서 우주론적 사유의 원천 역할을 했던 고전 『황제내경』에 대한 이제마의 입장은 이렇다. 즉 이 텍스트는 황제(黃帝)에 가탁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저술이기에 족히

89 李濟馬는 사상인별로 “性質才幹” 및 “識見才局” 즉 사람의 성향 및 재능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90 김명근(2003), 『애노희락의 심리학: 동무 이제마의 사상의학』, 개마고원, p. 58.

도(道)라고 칭할 수는 없으며, 내용상 그 이치는 고찰할 바가 있겠으나 전부 믿지는 말아야 할 것이었다.<sup>91</sup> 이 고전 텍스트에서 그는 우주론적인 장치들은 차치물론하고 의약경험 즉 병증약리 관련 기록만을 취했다.<sup>92</sup> 『동의수세보원』에는 우주, 천지, 만물/동식물, 화생, 성쇠 등 우주의 구조 및 생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인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우주적 사건과 관계된 어휘가 아닌,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는 일을 지칭하는 설명으로 인간을 규정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인성의 몸은 앞서 논의했던 성차 관련 언표들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여인은 음에 속하고 남자는 양에 속한다는 언표는 여성에게 칠정상이 많다는 근거로 제시되곤 했다. 하지만 생리·병리적 패턴은 제일 범주인 사상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상의학의 견지에서는 이러한 언표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태양인 여자도 있고 소음인 여자도 있다. 여음남양(女陰男陽)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혈남정’ 또는 ‘남녀기혈’ 역시 마찬가지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신·기·혈·정(神氣血精)을 성별로 나눠 배속하지 않을뿐더러 신기혈정 상호 간에 기능적 관계나 위계적 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sup>93</sup> ‘부인성편’은 분명 낮잡아 보는 말이지만, 사상의학의 관점에선 치우친 성정은 여성만이 아니라 사상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사상인은 두드러진 애노회락 성정을 장점 삼아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성정편급’(性情偏急)의 문제

91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論曰, 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 蓋此書亦古之聰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述也, 其理有可考, 而其說不可盡信.” 인간의 성장 과정을 우주론적인 맥락에서 해석되는 숫자 七과 八을 동원하여 남녀를 달리 분류해 설명했던 『黃帝內經』과 달리 이제마는 인간의 성장 단계를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남녀를 동일하게 분류했다(『東醫壽世保元』 「廣濟說」).

92 『東醫壽世保元』에는 ‘五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陰’, ‘陽’, ‘氣’란 용어는 보이지만, 그 쓰임은 단지 인체 내 생리적 과정이나 病證·藥理를 기술하는 맥락에 한정된다.

93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참고로, 李濟馬는 神·氣·血·精 같은 글자를 쓰면서도 전통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전용했다.

점에 유의해야 할 뿐이다. 여성이 감정에 예민하다거나 취약하다는 말은 사상의학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 사실, 감정은 남녀 성차의 사안이나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재 조건이자, 장점으로 확장해야 할 요항이다. 우울증은 성찰과 집중에 도움을 주며, 눈물은 공감의 훌륭한 매개체다. 희로애락 경험이 풍부할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처럼 감정을 풍부하게 행사하는 것은 세상과 능동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고, 이는 바로 생리적 움직임 즉 생명 활동의 추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성의 몸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이제마가 특별한 해명이나 단서를 남기지 않은 까닭에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진 않는다. 그가 주체의 자각을 촉구하고 다양성을 독려하는 비위계적 몸을 제시했던 배경으로는 우선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이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습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조선이 근대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때였다는 점, 그리고 그가 조선 사회에서 정치적·관습적으로 줄곧 차대를 받아 왔던 서북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혹자는 성·정을 중심으로 한 개인성의 몸이 출현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조선의 난숙한 심성론 논쟁을 꼽기도 한다. 『동의수세보원』에는 유학의 주요 논제였던 개념어나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제마는 이와 관련된 사상사적 맥락은 물론 특별한 문제의식 역시 표명하고 있지 않다.

## 7.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는 그간 단지 유교 이데올로기 및 남존여비 가부장제의 연

— [www.kci.go.kr](http://www.kci.go.kr)  
94 개인성의 몸은 서북인의 집단적 심성과 공명하는 면이 있다[이기복(2014), pp. 34-37].

[표 1] 성차의 관점에서 본 의학적 몸

의학적 몸	인식적 시선	지향/목적	작동 공간	실천론	성차(*)	배경
생생의 몸	태극음양	생생화화	우주 천지	음양화합	없음	진·한대 제국성립
생식의 몸	여혈남정 남녀기혈	인적 자원 재생산	가문/국가	조경/ 장정	있음	송대 부인과 산업주의
양생의 몸	신형삼보	불로장생	탈속 비인간	청정수양 환단내련	없음	조선중기 양생 문화
감정의 몸	칠정부침	정지조절	인간 관계망	이정역지 해물순기	있음	가부장제?
개인성의 몸	성정장국	자아발견	천하 세상	지인행신 재능발양	없음	근대전환기 서복인 차대?

(\*) 성차 항목의 경우, 명명백백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사실은 논외로 두고, 각 의학적 몸에서 드러난 남녀 간 근본적 차이 유무에 초점을 둔다. 생생의 몸에 성차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성차가 없다고 표시한 것은 (생생화화하는) ‘암수한몸’ 자체가 주목할 만한 대표적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장이자 이에 봉사한 동아시아 의학이라는 단순화된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차 관련 의학적 몸을 다섯으로 나눠 복합적인 지형을 살폈다. 몸을 규정하는 핵심적 개념어와 인식적 시선을 중심으로 의학적 몸을 나눠보면, 바로 태극음양 생생의 몸, 여혈남정 생식의 몸, 신형삼보 양생의 몸, 칠정부침 감정의 몸, 성정장국 개인성의 몸이다([표 1] 참조). 우주 천지에서 작동하는 ‘생생의 몸’은 천지 만물을 생생화화하는 우주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용동체의 몸이다. 이때 건남근녀로 표상되는 남녀의 몸은 만물을 생화하는 하나의 태극이 된다. 우주에서 가문/국가로 내려온 ‘생식의 몸’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손을 확보하고 국가의 역군을 기를 수 있는 생식력에 초점을 둔 몸이다. 송대에 전문분과인 부인과가 등장하면서, 여성은 혈(血)을 주인 삼아 조경에 힘써야 하고 남성은 정(精)을 주인 삼아 장정에 힘써야 한다는 의학 경구가 출현했다. 조선중기 사대부 양생 문화를 배경으로 한 ‘양생의 몸’은 불로장생하는 탈속 비인간 세계의 진인을 지향하는 탈 성

별화된 몸이다. 신체 조직 및 작동의 핵심 요소로 형(形)과 정·기·신(精氣神)을 전면에서 배치하고, 실천론으로 환단내론 및 청정수양을 제시했다. 이때 자궁은 생명 활동의 원천인 명문의 지위를 갖는다. 감정과 질병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삼고 있는 ‘감정의 몸’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칠정에 대한 절제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여성이 본디 감정에 취약하다는 속언이 붙어 다녔다. 이러한 ‘감정의 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개인성의 몸’이다. 감정이나 성정의 문제는 남녀 성차의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문제라고 언명하면서, 절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감정을 오히려 자아 완성의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여기서 여성은 음에 속하고 남성은 양에 속한다는 언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sup>95</sup>

이처럼 남녀 성차를 인식하는 틀 그리고 관련된 의학적 몸의 변화 과정은 동아시아 의학사 지형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남성주의적 과학/의학을 비판적으로 논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의학사 연구자들은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과도 거리를 뒀다. 이러한 사정 아래, 퍼스(Furth)는 젠더를 중심으로 본 중국 의학의 역사를 자동동체인 우주론적 “생성의 몸”과 부인과의 “회임의 몸” 양단 사이를 오고 간 것으로 기술했다. 이에 비해 우(Wu)는 언어학의 전문용어를 빌어와 중국 의학사에서의 의학적 몸에 대해 이르면서 이를 “부정사의 몸”(the infinitive body)이라고 비유했다.<sup>96</sup> 즉 암수한몸인 “황제의 몸”에서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굴절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의학적 몸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우가 “부정사의 몸”을 내세워 황제의 몸을 중국 의학사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퍼스는 음

95 조선의 경우, 전기와 그 이후에는 생생의 몸, 감정의 몸, 생식의 몸이 공존했고, 중기 이후에는 양생의 몸이 추가되었으며, 말기에는 개인성의 몸이 출현해 이들 의학적 몸 다섯이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에는 생생의 몸이, 후기에는 양생의 몸과 감정의 몸이 조선 몸 담론의 주류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96 Wu (2010), pp. 231-234.

양(陰陽)이나 기혈(氣血)로 기술되는 수사적이며 의학적인 중국 의학의 몸은 여전히 남성적이었다는 논평을 빠뜨릴 수는 없었다.<sup>97</sup>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사례 이를테면 조선의 “양생의 몸”과 “개인성의 몸”을 보태 동아시아 의학사의 지형을 보면 어떨까? 주목건대 개인성의 몸은 ‘성정은 남녀 성차의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언명을 넘어서 ‘음’(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양’(陽)에 대한 우월적인 태도 그리고 ‘여자는 음, 남자는 양’이라는 상투적 범주화를 재고토록 했다.<sup>98</sup> 이는 개인성의 몸이 실은 우주론적 사유와 고전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사실은 황제의 암수한몸이나 “부정사의 몸”만으로는 그려 낼 수 없는 동아시아 의학사 지형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 준다.

## 참고문헌

### 자료

『景岳全書』, 『女科經綸』,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歷試漫筆』, 『靈樞』, 『萬病回春』, 『本草綱目』, 『婦人大全良方』, 『備急千金要方』, 『素問』, 『五洲衍文長箋散稿』, 『醫方類聚』, 『醫宗金鑑』, 『醫學入門』, 『醫學正傳』, 『仁齋直指方』, 『周易』, 『朱子語類』, 『治腫指南』, 『太極解義』, 『辟疫神方』, 『鄉藥集成方』, 『血證論』, 『淮南子』.

<https://db.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s://mediclassics.kr/> (한의학고전DB)

<https://cloudtcm.com/shu> (中醫電子書大全)

<https://jjcheng.tw/tcm/book/index.html> (中醫笈成)

<https://ctext.org/>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논저

가노우 요시미츠(1999), 동의과학연구소 역, 『몸으로 본 중국사상』, 조합공동체 소나무.

97 Furth (1998), p. 265.

98 이항 논법의 강화와 ‘陰’성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弱肉強食’ 논리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19세기 제국주의 조류에 의해 강화된 것이었다.

- 권복규(1999), 「조선 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형 외(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저,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 김명근(2003), 『애노희락의 심리학: 동무 이제마의 사상의학』, 개마고원.
- 김성수(2019), 「20세기 한의학의 ‘신’(新)고전 탄생: 이제마(李濟馬)와 사상의학(四象醫學)」, 『인문논총』 76(3).
- 김성수(2006), 「鄭維仁의 『願生錄』 연구」, 『경희사학』 24.
- 김호(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 리전더(2021), 「여성의 필수 약재: 경계를 넘나드는 당귀의 세계사」, 『질병 관리의 사회문화사: 일상생활에서 국가정책까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석준(2016),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 동의보감 정기신(精氣神) 강의』, 바오출판사.
- 박승미 외(2001), 「韓醫學의 左右理論에 關한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18(1).
- 박이은실(2015), 『월경의 정치학: 아주 평범한 몸의 일을 금기로 만든 인류의 역사』, 파주: 들녘.
- 백승중(2008),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gender 문제와 성리학: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 『역사학보』 197.
- 성호준(2022), 「정유인(鄭維仁)의 보양론(保養論)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pp. 163-188.
- 신동원(2015),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파주: 들녘.
- 아사다 소하쿠(2016), 성기서·김용백 편역, 『橘窓書影: 물오약실방합구결과 함께 읽는 淺田宗伯 치험록』, 파주: 물고기숲.
- 왕하영(2020), 「여성 월경(月經 Menstruation)의 유학(儒學)적 맥락」, 『한국여성철학』 34.
- 이기복(2022), 「의원의 서사로 본 조선 후기 의료의 사회문화적 풍경」, 『한국문화』 98.
- 이기복(2019), 「조선 후기 의학 지식 구성 및 실행 방식의 변화: 18세기 『역시만필(歷試漫筆)』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41(1).
- 이기복(2014),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규(2015),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3.
- 이인수·윤창렬(2006),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1).
- 하여주(2022),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친정살이’와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색: 진주하씨 묘 출토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7.
- 하여주(2021), 「조선후기 유교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역설: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4(2).
- 하여주(2018),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 『東醫寶鑑』과 『歷試漫筆』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9.
- Bray, Francesca (1997), *Technology and Gender: Fabrics of Power in Late Imperial China*,

-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urth, Charlotte (1998), *A Flourishing Yin: Gender in China's Medical History, 960-16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 Dorothy (2005), *Cinderella's Sisters: A Revisionist History of Footbinding*,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 Dorothy (1994), "Introduction: Gender and the Politics of Chinese History,"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loyd, Geoffrey and Nathan Sivin (2002), *The Way and the Word: Science and Medicine in Early China and Greece*, Ithaca: Yale University Press.
- Martin, Emily (1991), "The Egg and the Sperm: How Science Has Constructed a Romance Based on Stereotypical Male-Female Roles," *Signs* 16(3).
- Wang, Yishan (2022), "Sexing the Chinese Medical Body: Pre-modern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Lens of Gender," *Routledge Handbook of Chinese Medicine* (ed. by Vivienne Lo and Michael Stanley-Baker with Dolly Yang), New York: Routledge.
- Wu, Yi-Li (2016), "The Menstruating Womb: A Cross-Cultural Analysis of Body and Gender in Hō Chun's *Precious Mirror of Eastern Medicine* (1613)," *Asian Medicine* 11.
- Wu, Yi-Li (2010), *Reproducing Women: Medicine, Metaphor, and Childbirth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i, Kiebok (2018), "Yi Chema and the Psychosocial Body in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47.
- Zhang, Yanhua (2007), *Transforming Emotions with Chinese Medicine: An Ethnographic Account from Contemporar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 ABSTRACT

# Revisiting the Gendered Body of East Asian Medicine

Yi, Kiebok\*

An Examination of Medical Narratives and  
Cognitive Practices in Joseo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history of Korean and East Asian medicine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medical narratives and cognitive practices surrounding the medical body during the Joseon (朝鮮) Dynasty (1392-1910) from a gender perspective. Rather than adopting modernist, orientalist, or West-based feminist approaches that view medicine as an autonomous field or reduce East Asian women to passive victims, this research methodology provides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sex- and gender-related medical narratives. Using the medical body as a probing lens, this study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narrative and its historical context to explore how medical principles and cognitive practices related to sex and gender differences have evolved over time. Significantly, these medical discourses and issues were rooted in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or informs a medically healthy and ideal body. The medical bodies under scrutiny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he body of cosmogony, the body of reproduction, the body of life nourishment,

---

\* Senior Researcher, Center for Science·Technology and Futur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ody of affectivity, and the body of individual agency.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se medical bodies offers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diverse and dynamic terrain of the history of Korean and East Asian medicine at large.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uanced and contextualized view of the history of the body, gender, practice in East Asian medicine, as well as highlight the ongoing relevance of these traditions in the contemporary world.

**Keywords** History of Korean Medicine, Joseon, Medical Body, Gender, Gendered Body, Gender-Specific Medicine, *DonguiSuseBowon*

